

이 만 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하늘과 구름에 관한 시각 이미지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김 지 영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01년부터 2003년 석사학위 청구전까지의 작업들을 중심으로 그에 기초하는 이론적 배경과 제작에 있어서 수반된 조형원리 및 방법 등을 종합한 것으로, 무한한 세계로써의 대자연과 유한한 존재로서의 자아와의 교감(交感)이라는 정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삶에 친숙한 대상인 하늘과 구름이라는 소재를 시각화한 것이다.

오늘날 각박한 현대 문명의 이기(利器)속에서 수많은 제약과 규격화된 일상의 틀 안에 갇혀있는 현대인들에게 하늘과 구름은 그 자체만으로도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늘이 가지는 원초성과 무한한 공간성이 도시화에 찌든 사람들에게 시각을 통한 정신적 여유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본 논문의 작품 속에 보이는 공간은 한정된 풍경의 일부가 아니라 가시거리 밖으로까지 확산되는 무한의 공간을 의미하며, 하늘과 구름의 이미지는 인식으로는 결코 다가설 수 없는 존재로, 틀에 갇혀 있는 대상이 아니라 끝없이 자유로운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하늘과 구름에서 느끼는 감동을 내적인 심상(心象)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서정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새로운 표현기법으로 묘사하고자 하였다.

먼저 작품 제작을 위한 표현에 있어서는 유연성에 의한 내면세계의 표출에 관심을 갖고, 재료가 가진 유연적 효과와 함께 의도적인 유연성을 연구하였다. 또한 커피의 번짐에 의해 형성된 자율적인 선의 움직임은 무한한 공간 속에서 자연적 이미지로써의 역할을 갖게 된다.

이처럼 섬유와 커피라는 표현매체는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하늘과 구름 이미지의 표현에 적합하며 어느 측면에서는 표현매체의 자율성을 강조하는데 상승 효과를 주고 있다. 그러므로 커피의 특성을 이용한 자율적인 선의 조형성을 표현하기 위한 번지기 방법에 좀 더 지속적이고 많은 연구를 하여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조형세계를 추구해 나가고자 한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창작의 경험을 통해 그것을 이론적으로 분석해 보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좀 더 넓은 시각과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의 작품 세계를 정리해 보고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하는 바이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표현대상과 이미지	3
1. 하늘	3
2. 구름	7
2. 방법적 표현 연구	10
1. 번지기 방법에 의한 우연적 표현	10
2. 선에 의한 추상적 표현	13
3. 표현기법 및 재료	16
III. 작품 분석	21
IV. 결론	36

참고 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 1】 천운(千韻)-천 번의 울림, 89×75cm, 혼합재료, 2003.
- 【작품2】 천운(倩雲)-아름다운 구름, 112×146cm, 혼합재료, 2003.
- 【작품3】 천운(濺漚)-홀뿌리는 큰 물결 일다. 118×199cm, 혼합재료, 2003
- 【작품4】 천운(天雲)-하늘과 구름, 130×324cm, 혼합재료, 2003.
- 【작품5】 천운(天樓)-나무 무늬 하늘, 140×42cm×2, 혼합재료, 2003.
- 【작품6】 천운(穿雲)-구름을 뚫다. 118×158cm, 혼합재료, 2003.
- 【작품7】 천운(舛云)-어지럽게 돌아가다. 91×76cm, 혼합재료, 2003.

I. 서론

자연은 그 자체가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이기에 인간은 이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삶을 영위(營爲)하고 미(美)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자연은 하늘과 땅 사이에 널려 있는 물체의 조화를 말하며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현상에서 우리는 사계절의 규칙적인 반복, 낮과 밤의 교차, 생물의 성장과 소멸 등의 오묘한 자연의 질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를 옴아매고 있는 수많은 구속과 정신적 압박감, 그리고 무기력해지는 반복적인 일상들은 우리로 하여금 일상에서의 일탈(逸脫)을 꿈꾸게 하며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은 자연인으로 돌아가고픈 충동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욕망으로 인해 진정한 자기 존재를 찾으려는 의지로써 자연 친화적(親和的), 회귀적(回歸的) 마음이 싹트게 된 것이다. 이처럼 자연으로의 회귀를 갈망하는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자연 가운데서도 하늘이라는 매개체(媒介體)를 통해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 됨을 이름으로써 정신적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얻고자 한다. 또한 작품 속에서 하늘을 향해 자유로이 상승하는 구름의 모습을 현재 자신의 모습에 투영시켜 일상적인 모든 것에서 초월한 마음을 갖게 함과 동시에 새로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원동력이 되게 하였다.

앞으로, 본 논문의 준비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진 내면의 정서가 작품에는 어떻게 작용하였으며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연구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주제를 표현해나가는 과정과 소재의 선택 동기, 그러한 소재가 작품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면, 먼저 II장에서는 첫 번째로 하늘과 구름을 가지고 작업하게 된 동기로써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는데 작품의 소재로써 하늘과 구름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그것들이 가지는 함축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는 방법적 표현 연구에 대해 서술하였는데, 번지기 방법에 의한 우연적 표현과 선에 의한 추상적 표현에 대해 언급하였고, 세 번째로는 주재료로 사용된 커피와 천이라는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표현기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III장 작품분석에 있어서는 각각의 작품이 지니고 있는 ‘천운’의 의미와 그 의미들의 효과적인 표현에 있어서의 제작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표현대상과 이미지

1) 하늘

자연은 인간 삶의 본래의 터전이며 인간이 속한 모든 환경이다. 이런 자연이 주는 감동은 예술적 표현의 뿌리가 되어왔듯이 자연이 만들어낸 형태는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다. 이러한 자연은 끊임없이 생명을 탄생시키며 스스로 생성(生成)하고 변화한다.

예술가가 자연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동양사상, 특히 노장사상에 의하면 천지만물의 현상이나 인간까지도 모두가 자연 속에 포함되는 것이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였다¹⁾.

이와 같이 동양에서는 인간은 하나의 자연적인 존재이며 자연에서 생겨났고 다시 자연으로 환원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참된 면을 자연과 합치(合致)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연미는 인간과 대립적인 객관적 대상의 미가 아니라 자연에 순응하고 이를 존중하는 가운데 체험되는 인간의 미적 감동에 근원을 둔 미라고 보았고, 예술미는 자연미와 인간과의 사이에 모체 내지는 통로로 존재하게 되며 결국 이는 자연미와 동일한 것으로 감상된다²⁾.

1) 이은상, 「자연론」, 예술원논문집, 1966, p.75.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동양의 자연관에 입각하여 자연을 정신적인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자연을 단순하게 외적으로만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표현하는 창작의 근원으로 파악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을 조화시켜 작품 세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자연 중에서 본 연구자의 눈길을 끌게 한 것이 바로 하늘이다. 하늘은 본래 자연 안에 존재하면서도 실제적인 형상을 직접 시각화 하여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어떤 자연물보다 보편적 확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 사이에서 상호 친화적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매개자(媒介者)의 역할을 한다.

이처럼 우리의 의식 속에서 많은 영향을 미쳐온 하늘은 역사의 변천이나 문화의 발달 및 생활양식의 변화에 의해 각기 다르게 형상화되었고, 또 각 시대에 따라 그 형태와 의미가 달라지면서 내용도 다양하게 표현되어졌다.

동양화에서 하늘의 표현은 지평선의 경계나 산 능선의 경계로 여백을 남겨두어 표현한다. 만약 수묵화에서 하늘을 여백으로 남겨두지 않고 푸른색으로 표현하였다면 무한한 공간감과 여백의 의미는 사라지게 되었을 것이다. 하늘은 전혀 가필(加筆)하지 않는 완전한 여백이나 그 여백은 중간에 그려진 산의 모습에 따라서 멀리 떨어진 공간과 가까운 공간 사이의 공간성을 남김없이 표현해주고 있다. 즉 원경(遠景)에 접해 있는 여백은 원경의 하늘로, 근경(近景)에 접해있는 여백은 근경의 하늘로 표현되는 데 조금도 손색이 없다. 더군다나 무한하고 방대한 느낌으로 하늘을 그대로 남겨 두어도 감상자는 이를 하늘이라 느끼게 되며 이 또한 수묵화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간 표현인 것이다.

2) 백기수, 「미학」, 서울대학교 출판국, 1979, p.16.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갈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늘이 주는 시각적 환경에 있다 할 것이다. 인위성(人爲性)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드넓은 하늘이 눈앞에 펼쳐지면 시각에 대한 장애 없이 살아 숨쉬는 생명 에너지에 우리의 눈길을 주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시각적 환경이 주는 광활함에 대한 반응으로 자연에 내재된 질서와 멀리 우주에까지 조우(遭遇)하고 싶은 욕망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하늘은 우리에게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해주고 내면까지 정화시켜주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사는 현실 속에서 때때로 위안을 주고,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고픈 갈망이 그리움의 대상으로 다가옴으로써 하늘을 소재로 작업하게 한 근원적 동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자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하늘은 어린 시절의 순수함에 대한 회상으로 부터 출발하여 외부로부터 생겨나는 갈등들에 대한 도피처, 더 나아가 자아를 모색해가는 가운데 현실과의 갈등을 해결해 주는 대상이 된다. 어린 시절 하늘은 꿈과 환상을 주는 이미지로 다가왔으며 자유롭게 몽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었다. 그러나 하늘을 시각적인 대상으로 조형화시키는 과정에서 그것은 어린 시절 동경하고 바라보던 하늘의 이미지가 아니었다. 눈에 보이는 하늘, 손에 잡힐 것만 같았던 하늘은 소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더 멀어져가고 이처럼 어린 시절 꿈꾸던 하늘에 대한 생각이 나이가 들어 현실세계와의 괴리감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것은 압박감으로 다가왔고 이러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창작적인 욕구로 자연스럽게 이행되어 갔다.

이처럼 인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그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현대사회는 물질문명의 고도화로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허무와 불안, 무관심 그리고 개인 간의 갈등과 불신으로 점점 고립화, 몰 개성화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들이 갈수록 폐쇄적으로 흘러가다보니 생각들은 점차 더 어둡고 비관적으로 변하여 그 결과 현대인들은 정신적 질환과 마음의 병을 앓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주어진 현실 상황이 부정적일지라도 인간은 그 속에서 꿈과 이상을 꿈꾸게 된다. 이는 부조리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노력이며 의지인 것이다³⁾.

본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하늘은 자아의 자유의지가 반영된 것으로써 일상에서 오는 소외, 자아존재의 상실감, 그리고 혼돈의 현실 속에서 자연의 힘에 동화(同化)된 인간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소망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너무나 폐쇄적으로 갇혀있어서 그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꿈과 이상(理想) 그리고 삶과 현실을 절벽처럼 느끼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자아 상실의 공간인 현실, 그러한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연과 한 몸이 되고 싶은 욕망은 무한한 자유를 꿈꾸는 자아이며 그것은 또한 나의 상징적 하늘 이미지이기도 하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늘에서 느낄 수 있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초월과 자유라는 이상을 향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새롭게 인식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인간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무한성에 대하여 현존하는 세계의 유한성이 갖는 끝없는 갈망이다.

3) 윤승연, 「꿈과 이상을 가진 내면 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16

2) 구름

미술은 늘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고 보이는 것을 통해 자아를 확인하려는, 내면의 세계를 객관화 하고자 하는 인간의 무의식적인 욕구충족의 수단이며, 즉 예술은 자연을 통해 보여진 인간의 기질(氣質)이다. 이러한 내면의 표현적 욕구를 변화무쌍(變化無雙)한 구름을 통해 드러냈으며, 이 같은 구름은 인간내면의 조형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기에 예술의 소재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고 본다.

예술적 상징의 대상으로 구름은 우리민족에게 있어서 미래의 행복을 추구하며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의 표출(表出)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농업을 생업(生業)으로 삼았던 선조들의 생활환경 때문이었다. 특히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은 비가 되어 곡식을 풍성하게 자라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더욱 중시되었고 이러한 구름은 가공할 만한 천재지변에 대한 외경심의 대상이기에 자손만대의 번창하고 부귀영화와 풍요로운 삶을 염원하는 마음을 지니는 한편 우리 선조들이 추구하여온 내세관이 깃들어 있다⁴⁾.

또한 구름은 해, 달, 물과 함께 조선시대 십장생(十長生)의 하나로 독립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민간신앙에서 다복(多福), 다수(多數), 다손(多孫)의 상징적 요소로 나타난다⁵⁾. 구름이 장수(長壽)를 의미하는 것은 이미 고대 이래의 생활관념 이었던 것이니, 동양사상에서 무위자연(無爲自然)의 경지를 통해 영원토록 상주불변(常住不變)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4) 임영주, 「한국전통문양 I」, 예원, 1998, p.17.

5) 안상수, 「한국 전통 문양집 4 구름무늬」, 안그래픽스, 1998, p.16.

이것은 구름이 지닌 심상이 각 시대의 생활 속에서 친숙한 표현소재로 애용되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구름은 최고의 이상향(理想郷)으로 여겨져 인간들로 하여금 자연에 대한 경건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하였다.

이처럼 구름과 인간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인간은 자연 속의 구름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갖고 세밀한 관찰과 탐구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묘사된 바 없는 구름의 특징을 찾아내어 독창적인 표현 양식을 형성해왔다. 즉 인간은 구름 속에서 미(美)를 발견하고 그 체험한 미를 예술가의 조형 의지와 예술 활동을 빌어서 구체적인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구름은 부동(浮動)하는 기체로 천변만화(千變萬化)의 형태를 지니고 있고 내재적 기세(氣勢)와 강약허실(強弱虛實)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환상적 경지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⁶⁾. 이렇듯 인간의 시지각으로 느끼는 구름은 순간적으로 스쳐지나가는 자연현상이지만 개개인의 심리상태나 정신세계에 따라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때론 각양각색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 오염된 도시에서는 선명한 구름을 자주 접할 수 없으며 이는 마치 도심 속에서 상실되어가는 인간의 순수함을 대변하는 듯하다. 이로 인해 우리에게 구름은 더욱 그리움의 대상으로 남는다. 산업화된 현대 사회에서의 구름은 과거와는 달리 별다른 상징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고요히 떠가는 구름을 보면서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기도 하고 추억을 회상하기도 하며 단순히 풍경으로써 즐기기도 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구름은 서정적 의미가 강하다고 본다.

본 작업에서 구름은 높고 먼 곳에 자리 잡은 순수의 표상이며 미지의 세계를

6) 허균, 「전통문양」, 대원사, 2003, p.123.

향한 호기심과 이상세계에 대한 갈망이다. 또한 하늘에 유유히 흐르는 구름의 모습은 그 넓음과 깊이에서 엄숙하고 숭고한 경외심(敬畏心)을 갖게 하는데 이에 구름을 통해 자신의 모습과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갈망을 투영시키면서 무한한 심상을 지닌 대상으로써 구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2. 방법적 표현 연구

1) 번지기 방법에 의한 우연적 표현

우연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세기 초 낭만주의 작가 들라크루아(Eugene Delacroix, 1798~1863)⁷⁾에서부터였다. 이후 다다이즘(dadaism)⁸⁾ 작가들이 우연을 발견하여 본격적으로 작품에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우연은 예술 창작 특히 추상 작업에 새로운 자극제가 되었다. 한스 리히터(Hans Richter, 1888~1976)⁹⁾는 다다(dada)에서 “우연은 예술의 영역에서 연상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응 그리고 사상의 비약적 결합, 언어와 음(音)의 예기치 못한 결합의 효과에서 오는 예술의 한 가지 중요한 차원에 도달했다.”¹⁰⁾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우연이 가져오는 효과를 이용하여 기법 상의 우연이 단순한 우연에 그치지 않고 필연적으로 어떤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키게 하였다. 먼저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추상 의지를 표출하기 위해 번지기 방법을 사용하여 화면을 형성시켜 나갔으며, 이러한 번지기 방법을 여러 번 반복하여 화면의 깊이를 심화시켰다. 매우 유동적이고 비정형적인 번지기 과정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 화면에서의 밀도가 쌓이게 되며, 수채화에서 색이 겹치면 점점 진해지고 겹쳐진 색의 중간색이 나오듯이 색이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효과가 예기

7) 프랑스의 화가, 주요작품 《사르다나팔루스의 죽음》 1827,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1830, 《알제의 여인들》 1834.

8)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말엽부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예술운동.

9) 독일의 화가·전위영화작가, 주요저서 《다다이즘 예술과 반예술》 1914, 주요작품 《환상적 초상》 1917, 《돈으로 살 수 있는 꿈》 1944.

10) 정병관, 「현대미술과 우연의 법칙(下)」, 계간미술 제7호, 중앙일보사, p.160.

치 못한 방향으로 나오게 된다.

본 작품 속에 번지기 방법을 응용한 추상이미지를 도입하게 된 목적은 자연 속에서 느끼는 편안함, 때론 긴장됨 등과 같이 구체적인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들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러한 조형 표현은 동양화의 수묵화 기법 중 발묵법(潑墨法)에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발묵이란 화면위에 먹의 형태로 붓거나 뿌릴 때, 붓을 쓰지 않고 종이와 먹 사이에서 그 형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유묵무필(有墨無筆)이라 하였으며, 먹이 순간적으로 화면에 흐트러질 때 인위적인 작용이 갖는 효과 이외에도 먹의 본래 지니고 있는 번지는 성질에 의해 우연적인 형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처럼 동양화에서는 먹이 종이 위에 가해지면서 바로 종이의 조직 속으로 스며들어가 재료와 바탕이 일체가 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먹 대신 커피를 이용해 천위에 표현해 보았다.

우연성을 표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티에르인데 “질은 매체일 뿐 아니라 그림의 내용”이라고 한 뷔페(Buffet. Bernard, 1928~1985)¹¹⁾의 말처럼 마티에르 자체의 강한 물성(物性)을 강조하여 표면에서 얻을 수 있는 표현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장지위에 천을 붙여서 번지기 효과를 추상이미지로 표현하였다.

본 작품은 시작에서 끝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물감이 건조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랜 시간성을 요구하는데, 어느 정도 물의 농도와 커피의 양을 통해서 번짐의 형상을 의도할 수는 있지만 일단 화면에 그려 놓으면 색채나 공간

11) 프랑스의 작가, 주요작품 《그리스도의 수난》, 《전쟁의 공포》, 《서커스》, 《잔 다르크》.

구성이 의도대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작품들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욱 많다. 그런 원인은 조형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우연적인 현상에 의존해 본인에게 유희적인 것들을 위주로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무의식적인 행위로서가 아니라 의도적인 우연성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색채를 표현하는 과정에서는 의도된 화면을 보여 줄 수 있었다.

작가는 색채를 통해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가장 감정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색채는 풍부한 내적 묘사를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로 인간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한다. 본 연구자는 주위를 둘러싼 하늘의 색을 의식적으로 보려하지 않았고 감정으로 대했다. 그때의 하늘색은 브라운(brown)이었다. 이처럼 자신의 의지대로 변형되고 왜곡되어진 색채의 표현은 자신만의 자유로운 세계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것은 하늘에 대한 추상화의 반영이며 자연적인 것 속에서 인위적인 것이다.

색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제한된 색을 사용하되 커피와의 혼합을 필수로 하여 언뜻 보기에는 단조로우나 화면에서 보다 통일된 색을 볼 수 있게 하였다. 특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색은 커피로 인한 갈색으로 갈색은 요란하지 않으면서 화면에서 은은하게 깊이를 더해 주는 색이다. 특히 자연 이미지를 표현함에 있어 흔히 쓰이는 갈색은 색채 구성에 있어서도 모든 색을 뒷받침해주는 색이다.

이와 같이 우연의 효과를 이용하여 표현된 여러 이미지들은 하늘에 투영된 심상을 나타내기에 적합한 상징적인 색채와 무형상의 조형이 조화를 이루어 극대화된 자유를 표현하게 되었다.

2) 선에 의한 추상적 표현

선(線)은 점이 움직여나간 흔적, 다시 말해 점이 만들어낸 소산이다. 기하학에서는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을 선이라고 정의한다¹²⁾. 엄밀하게 따지자면 선은 2차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¹³⁾. 라고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¹⁴⁾는 말하고 있다. 이는 곧 선은 점의 운동으로 생기는 동적인 내면세계를 표현하는데 색과 더불어 적합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화면 위의 선은 다양한 성격을 지니면서 화면에다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기하학적인 선은 아니지만 이데아(idea)의 표상이다¹⁵⁾.

허버트 리드(Herbert Read, 1893~1968)¹⁶⁾가 선은 요약된 것이며 그 자체가 그 이상의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이러한 선의 암시성(暗示性)은 예술가에게 있어 얼마나 표현적인 수단인가! 즉 선은 표현을 위한 매우 풍부한 수단으로써 최소한의 노력으로 모든 정서나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의미를 지닌다¹⁷⁾. 그리고 그 선이 확실히 추상적인 형태로써 어떤 대상도 나타내고 있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거기에서 감정적이고 표현적인 요소를 발견해 낼 수 있다. 이처럼 선은 예술행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창작행위의 수단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선의 특징으로 방향성을

12) 데이비드A. 라우어, 「조형의 원리」, 이대일(역), 미진사, 1985, p.157.

13) 칸딘스키, 「점,선,면」, 차봉희(역), 열화당, 1983, p.47.

14) 러시아 출신의 프랑스 화가, 주요저서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 주요작품 《푸른 산》 《즉흥 14》 《검은 선들》.

15) 허버트 리드, 「예술이란 무엇인가」, 윤일주(역), 을유문화사, 1971, p.61-64.

16) 영국의 시인, 예술비평가, 주요저서 《벌거벗은 용사》 1916 《예술의 의미》 1931.

17) 데이비드A. 라우어, p.157.

들 수 있다. 선이 있는 곳에 방향이 있고 방향이 있는 곳에 선이 있다¹⁸⁾. 수평선은 고요함이나 휴식을 암시해 주고, 수직선은 많은 활동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움직임을 가장 확실하게 연상시켜 주는 것은 대각선이다¹⁹⁾. 이처럼 중앙에 묶여서 정적이던 점과는 달리 선은 그 성질상 역동적이고 어느 방향으로든지 무한히 계속될 수 있으며 하나의 형태로나 중심에 대해 속박당하지 않는다.

선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의 선은 행위성, 즉 운동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으로 선을 긋는 데는 ‘어떤’ 행동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작업 가운데 일어나는 리듬에 자신을 실어 몸 전체로 그리는 것을 뜻하며 나아가 몸 전체를 통한 내면적 리듬이 화면 위에 표상(表象)되어지는 것으로 자유롭고 즉흥적인 선을 통해 자신의 숨 가쁜 에너지의 분출을 나타낸다. 이러한 표현적인 하나의 선은 방향(direction), 정위(orientation), 운동감(motion) 등의 에너지를 갖는다.

운동의 효과는 형(形)의 연속에 의해 얻어지는데 동일하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한 형, 색, 선, 방향 등의 반복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적 이미지 또는 율동감을 느끼게 한다. 이때 일어나는 시각적인 효과는 무한히 계속될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형태가 계속 반복되면서 그것이 지닌 메시지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율동감은 표현하려는 작가의 감정과 주관에 의해 여러 가지 표정의 동적인 선으로 연출될 수 있다. 허버트 리드는 선은 사물의 윤곽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선 그 자체의 자율적인 운동을 표현하며 나아가 선이 적절히 표현되었을 때 리듬이 생긴다고 하였다. 즉 선의 자율적인 운동에서 보여 지는 동적인 움직임

18) B. 클라인트, 「인간의 시각·조형의 발견」, 오근재(역), 미진사, 1994, p.94.

19) 데이비드A. 라우어, p.162.

임에는 미적 즐거움이 표현되며 그곳에서 우리는 선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본 작품에서의 선 또한 사실적 표현보다는 추상적인 선들로 면과 면의 발목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선을 나타내었다. 부드럽고 온화한 화면의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한번에 그어지는 선으로써가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중첩된 선을 통하여 화면의 깊이를 표현하고자 했다. 화면에서 묘사되어진 선은 안에서 밖으로 분출하는 힘을 나타내기도 하고, 밖에서 안으로 끊임없이 돌아 들어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은 선 자체가 화면 안에 걸쳐있는 것이 아니라 화면 밖으로 또는 화면 깊은 내부로까지 전달됨을 나타내고 있다.

동양화는 ‘선(線)의 예술’ 이라고도 한다. 즉, 먹에 의한 선묘(線描)가 작품 안에서 생명력을 갖는데, 작가의 감정이 붙여넣어진 모필(毛筆)이 만들어 내는 선은 동세가 풍부하기 때문에 많은 조형적인 요인들을 함축하고 있다. 특히 동양의 모필에 의한 선은 딱딱한 연필이나 펜에 의한 것보다 더욱 유연한 감정을 지니고 있어서 이미 선 그 자체에 약동(躍動)하는 생명감이 포함 되어 있다. 말하자면 기(氣)가 담긴 에너지의 표출로 내면의 사상과 의미를 전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은 표현을 위한 매우 풍부한 수단으로써 모든 정서와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의미를 지니며, 그 미적 대상에 따라서는 하나의 표현 목적으로도 이야기 될 수 있다.

3. 표현기법 및 재료

재료는 예술작품의 감각적 실재성(實在性)을 나타내는 표현 수단일 뿐 아니라 표현하고자하는 주제의 내용에 까지 변화와 제한을 줄 수 있다. 특히 재료에 대한 특성의 이해와 그것에 따른 개인적인 기법의 습득은 표현 과정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함으로써 창의적인 작품세계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작업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시각에 영향을 주는 재료와 기법은 조형적으로 봤을 때 작업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 법칙에 따른다는 것이며 여기에는 그 재료를 통한 조형적 사고가 수반되어야 한다.

작품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적절히 드러날 수 있는 재료와 기법이 사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선택은 내적 필연성에 근거해야 한다. 예술은 “논리적 언어의 서술이 아닌 ‘은유’ (metaphor)와 같은 ‘보여주는’ 것”²⁰⁾이라는 정신적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미술은 개인적인 심상과 기술적인 방법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완전해질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작품 제작에 있어서 내적 심상에 의한 감성 표현의 적합한 재료로써 번지기 효과를 지닌 커피를 중심으로 다루어 보았다. 커피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색으로 인공적인 물감에 비해 채도가 낮아 전체적으로 튀지 않고 가라앉은 색상인데, 무엇보다 우리 동양의 정서에 잘 맞는 한국적 색감이 담긴 재료라 할 수 있다. 이는 어떠한 화학 염료로도 얻을 수 없는 고유의 독특

20) 홍가이, 「현대 미술, 문화 비평」, 미진사, 1987, p.149

한 색상으로, 특별한 배색조화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든 색들과 잘 어울린다.

이러한 커피의 특성이 화면위에서 어떠한 가치성을 가지고 본인의 충동적인 표현 행위와 연관시켜 무의식과 의식의 조화를 이루어내는지 살펴보면, 먼저 커피 자체가 끊임없이 표현되는 우연적인 효과를 통해 내적인 감정세계를 화면 전반에 나타낼 수 있었고, 이런 조형성을 통해 독창적인 공간 개념을 가지고 천위에 평면이면서도 깊은 깊이감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처럼 커피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물에 의해 밀려나면서 생기는 얼룩의 효과가 다른 재료에 비하여 형태, 색채의 표현에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작품 제작의 주재료로 사용되어진 가장 큰 이유다.

또한 적절한 재료의 선택과 효과적인 표현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공되지 않은 천(거즈; gauze)을 이용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표면 자체를 표현으로 인식하는 시도’²¹⁾를 하게 되었다. 천은 수성물감과 커피를 그대로 흡수하여 동양화에서 한지와 먹물의 관계와 같은 효과를 얻게 하였는데 이 같은 천이라는 재료가 지니는 감각적 특질, 변형·조작의 가능성, 물성으로서의 반응 등은 단순한 재료의 의미로써가 아닌 내적 표현의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했다. 천을 이용한 화폭의 재질 변화는 물감이 자연스럽게 변질 수 있도록 천을 장지 위에 매끈하게 펴 바르는 방법을 사용하여 섬유가 지닌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질감의 특성을 나타내게 하였다. 질감은 촉각으로는 물론, 시각으로도 감지할 수 있다. 그리고 질감과 색채는 직접적으로 상호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각적 면으로 인해 질감은 시각예술에 있어서 형상, 크기, 색채와 더불어 중요한 요소

21) 오광수, 「모노크롬은 이념인가」, 월간미술 제8권 3호, 중앙일보사, 1996, p.50,

가 된다. 결국 섬유라는 부드럽고 유연한 재질의 촉각적 특성과 눈으로 보아 느낄 수 있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서로 호응하여 완전함을 이루는 것이다.

화면 안에서 간혹 변화를 주거나 강조해야 할 부분에서는, 천위에 얼룩이 희미하게 비칠 수 있을 정도의 조각 천을 덧붙여서 표현하고 싶은 곳에 시선이 집중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때 사용되는 조각 천은 거즈가 지닌 자연스런 울 풀림을 이용해 추상적 형태로 자유롭게 나타내었다. 이처럼 전통적인 재료인 한지와 천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전통적인 기법에서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의 감각에 맞는 조형미를 창출해낼 수 있었다.

또한 천을 바탕으로 한 화면 위에 즉흥적인 우연성에 의한 번지기 방법을 사용하여 하늘과 구름 이미지를 커피의 번짐과 농담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런 번지기 방법은 커피가 순간적이고도 촉발적(觸發的)으로 화면에 번져나가면서 인위적인 작용이 갖는 이외에도 본래의 성질이 지니는 번짐과 퍼짐의 상태가 자연 발생적으로 더하게 됨으로써 화면의 전체적 구성이 정해진다.

그리고 작품전체의 얼룩진 화면 위에 넓게 펼쳐지는 의도적인 선으로부터 이미지의 추출이 시작되는데 이처럼 작업에 있어서 화면에 처리된 얼룩의 형상과 선의 표현은 작품 형성의 중요한 요소로써 작용한다. 특히 선은 붓을 통한 손의 자유로운 움직임에 따라 섬유를 물들여 나간다. 이러한 선은 물감이 섬유에 번지면서 생동감 있게 움직임과 동시에 겹치고 반복되는 가운데 새로운 공간감을 나타나게도 하고 깊이감과 절제감을 주기도 한다.

또한 모필이 갖는 유연한 구조와 물의 농도에 따른 번짐과 수축의 변화적 속성에 따라서 작가가 화면에 붓을 대는 순간마다 결코 복제될 수 없는 개인적인 특성을 만들어내게 되므로 어느 작가든 똑같은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없게 된다.

색의 사용과 표현에 있어서는 브라운(brown)과 그린(green)계열의 한정된 동일 색을 사용하였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색에는 커피가 첨가되어 화면의 전체적인 동질성과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제한된 색상이지만 커피의 번짐과 농담을 통해 얼룩진 무늬에서 미묘한 변화의 무수한 형상을 표현하였다.

본 작업에서 색은 얇은 색막(色膜)들의 반복적인 중첩으로 처리되는데, 색의 중첩은 색 자체의 상징성을 드러낸다기보다는 표면의 색과 밑에 층층이 겹쳐진 색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색의 진동을 만들어낸다. 이처럼 비슷한 계열의 색의 미묘한 변화들은 멈춘 듯 움직이는 공기의 표현으로 나타나며 가볍고 중량감이 없는 공간에서 자유스럽게 확산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어떤 단정적인 의미에서의 공기의 흐름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 제한되지 않고 공간 내에서 중량감 없이 유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색채 표현은 작품의 소재인 하늘과 구름을 묘사하기에 효과적이다.

한편, 색상을 한번 가한 후 그 위에 물을 올리게 되면 물이 커피를 밀어내면서 밀려나간 경계선 자리에 커피가 모아지게 되어 얼룩을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얼룩은 작품이 가지고 있는 울동적인 구조를 뒷받침 해준다.

또한 작업 과정에서는 시간성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한번의 밑칠 후 다음 칠을 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표면이 건조된 후에 다음 작업을 진행 시킨다. 천이 마른 상태에서 색상을 가해야 번진 경계선이 뚜렷하며 물기가 남아있으면 경계선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칠을 하다보면 밑 색과 위에 칠해진 색 면의 층들 사이에서는 시간적인 차이를 가지고 각 층의 표면이 마감된다. 이러한 많은 시간성과 색과 색의 층 구조가 결합되어 중첩표현을 함으로써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에서 깊이감을 더해준다.

작품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재료와 기법은 작품의 생명과 지속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자신의 표현의도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천과 커피라는 표현매체는 본 연구자의 표현 의도에 적합하였으며 어느 측면에서는 표현의 자율성을 극대화시켜 독창적인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커피의 번짐으로 젖은 섬유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의도된 농도의 색채가 건조 시 흐리게 나타나는 단점이 발견되었고, 또한 한번 붓이 지나간 자리는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도 나타났는데 앞으로 이부분에 있어서 많은 실험과 연구로 문제점 해결에 힘써야 할 것이다.

본 작품에서는 하늘과 구름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기본 재료로 장지위에 천을 바름으로써 바탕에 자연스러운 마티에르를 만들어 내었고, 물감에 커피를 첨가함으로써 우연적으로 나타나는 번짐과 퍼짐의 속성이 자연적으로 표현되게 하였다. 또한 이러한 커피와 천이 가지는 특성을 파악하여 한국의 이미지가 담긴 새로운 재료의 가능성을 나타내고자 하였고, 우리 체질에 맞는 재료와 기법을 찾는 것이 세계화, 다원화 양상에서 동양화의 현대화로써의 존재 가능성을 제시하리라 본다.

Ⅲ. 작 품 분 석

본 작품들은 하늘의 본질적 특성을 연구하고 동적 의미를 지닌 구름 이미지를 조형화 하여, 자신의 내면에서 동경(憧憬)하는 이상세계(理想世界)로의 열망을 표현하였다.

본 작품에서 표현된 하늘과 구름은 각 작품마다 다른 의미의 제목으로 묘사되는데, 크게 천운(天雲)이라는 주제 안에서 각각의 이미지에 맞는 특징을 포착하여 동음이의어(同音異議語)로써 제목을 정하였다.

작품제작에 있어서 전체적인 특징을 몇 가지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작품의 재료로 천과 커피를 사용하였는데 특히 커피의 번짐을 극대화 하기위해 커피를 칠한 선 위에 다시 물을 칠함으로써 물이 커피를 밀어내면서 자연스런 얼룩이 생기게 하였다. 둘째, 2~3가지 색으로 색을 절제해 사용하고 사용되어진 모든 색에 커피를 첨가함으로써 톤에 통일감을 주고자 하였다. 셋째, 우연적 선들을 의도적인 형태로 유도시켜 자유로운 추상적 형태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제작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작품의 주제는 자연의 구체적 요소인 하늘과 구름을 중심으로 시각이미지에서 출발하여 근원적이고 내면적인 의식을 향해 가는 무의식적인 면을 탐구하는 것이다.

【작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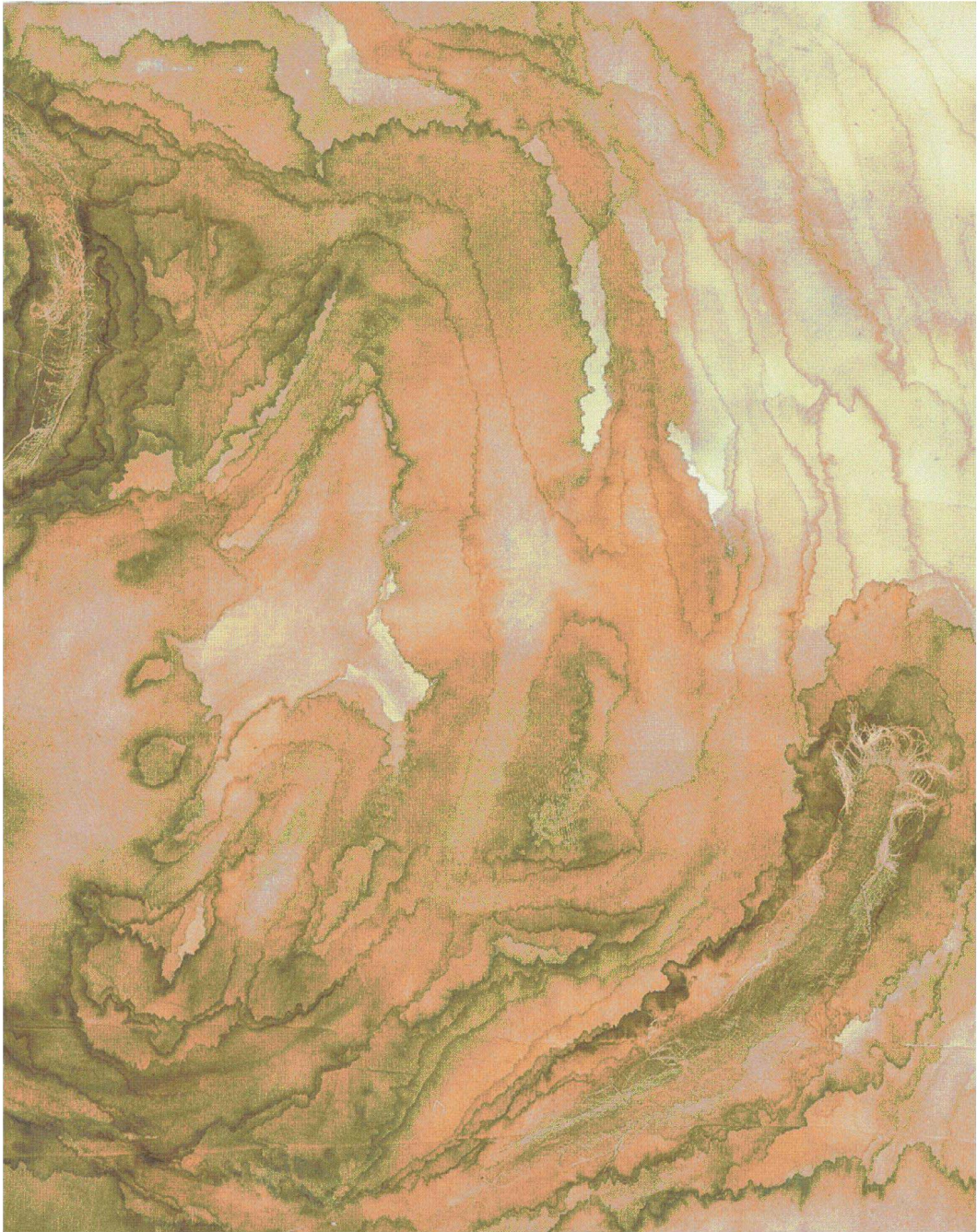
- 작품제목: 천운(千韻)-천 번의 울림
- 작품크기: 89×75cm
- 제작년도: 2003
- 작품재료: 장지위에 천, 커피, 수성물감

千韻-천 번의 울림.....작품 속에 있는 각각의 선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음색(音色)을 나타내며, 이 선들이 서로 엉키고 뒤섞이어 이중의 질서를 가지게 될 때에 화면에서는 교향악적 울림이 나오게 된다. 그것은 음악에 있어서 독립된 하나의 음(音)이 모여 자울을 이루고 화음(和音)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각적 영상을 만들어낸다.

이 작품은 구체적인 하늘의 묘사가 아니라 하늘, 구름, 비, 안개 같은 것들이 경계 없이 애매모호하게 뒤섞인 듯한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깊고 맑은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 그린(green)계열의 색조에 커피를 첨가 하여 농도를 달리하면서 채색하는 과정에서, 점차 저채도화 된 색의 층구조는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공명(共鳴) 같은 청각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무한한 공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으며 전체적으로 퍼져있는 선들은 유기체의 왕성한 활동력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점점 확장되어가는 공간감을 느끼게 해준다.

커피와 물의 농도와 천위에서의 흡수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번지기 방법이 주된 표현 방법으로 존재하는데, 즉흥적이고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화면은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는데 충분한 효과를 보여준다.



【작품 1】 천운(千韻)-천 번의 울림, 89×75cm, 장지위에 천, 커피, 수성물감, 2003.

【작품 2】

- 작품제목: 천운(靑雲)-아름다운 구름
- 작품크기: 112×146cm
- 제작년도: 2003
- 작품재료: 장지위에 천, 커피, 수성물감

靑雲 -아름다운 구름.....구름 안에 구름, 구름 밖에 또 구름, 큰 구름 속에 있는 작은 구름이면서 각각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구름은 그 속에서 많은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이 작품은 저녁노을로 빨갱게 물든 해질 무렵의 하늘을 소재로 하였다. 이처럼 곱고 강렬한 빛깔들이 천지를 붉게 물들여 하나의 세계로 융화시킬 때 그 안에서 황홀경을 느끼게 되고 한없이 평온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본 작품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을에 의해 변화되어 가는 구름의 이미지를 추상적인 선을 사용해 율동성 있게 표현하였다. 평붓을 사용함으로써 면의 중복으로 형성된 선들이 자유롭게 교차함으로써 마치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을 표현하였다. 이렇듯 자발적인, 그리고 충동에 의한 붓의 움직임으로 영혼과 가장 깊은 심층의 미세한 진동까지도 표출이 가능 한 것이다.

색에 있어서는 커피의 양에 따라 다양한 농담 변화를 갖는데 커피의 농도를 짙게 칠했을 때는 물감의 번짐이 약하게 나타나나 비교적 강한 번짐선을 표현할 수 있었고, 묽게 칠했을 때는 물의 밀림에 의해 나타나는 번짐의 효과가 그만큼 약하게 나타나지만 부드럽고 은은한 느낌의 표현이 가능하였다.



【작품 2】 천운(靑雲)-아름다운 구름, 112×146cm, 장지위에 천, 커피, 수성물감, 2003

【작품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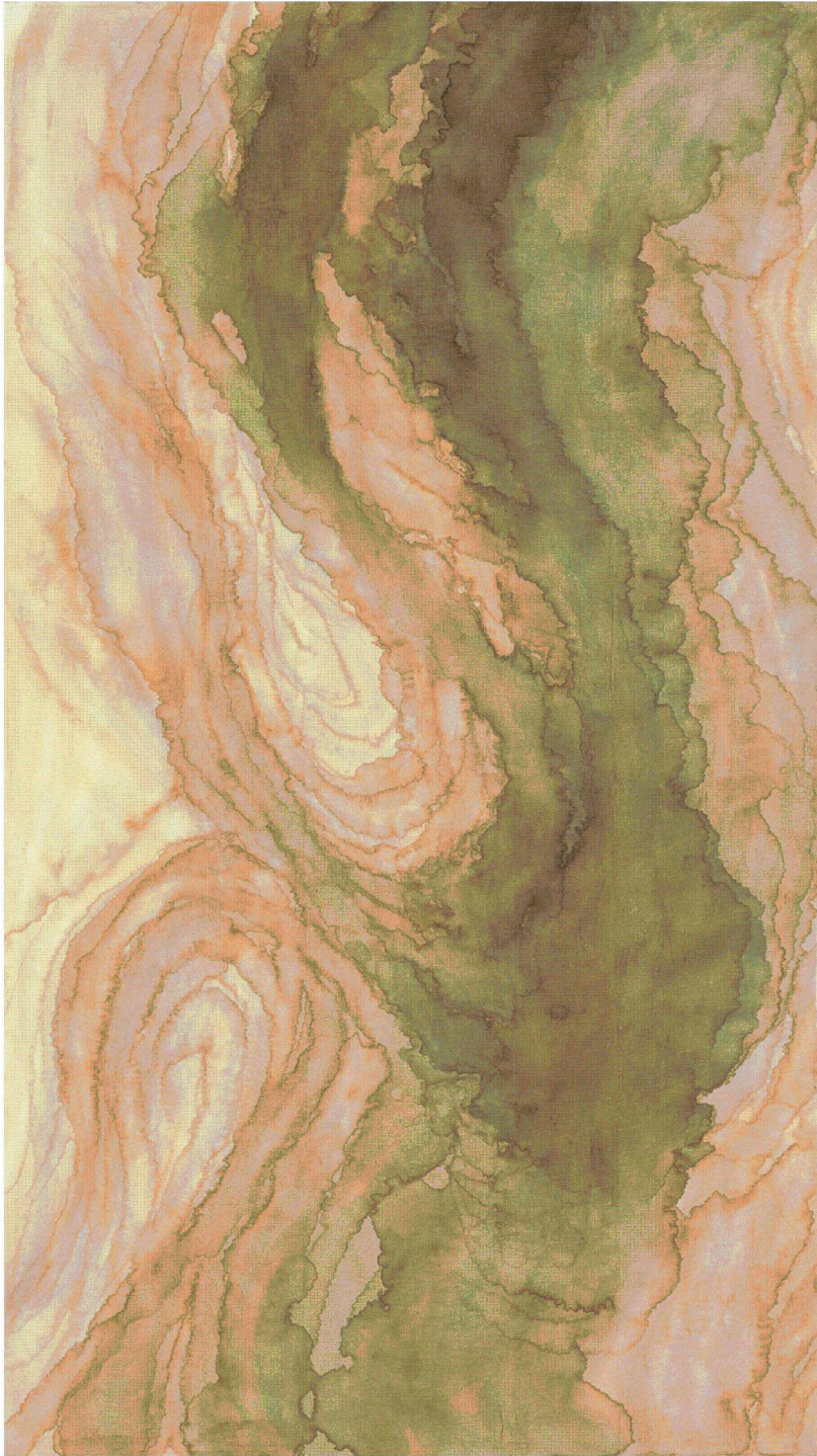
- 작품제목: 천운(濺漚)-홀뿌리는 큰 물결 일다.
- 작품크기: 118×199cm
- 제작년도: 2003
- 작품재료: 장지위에 천, 커피, 수성물감

濺漚 -홀뿌리는 큰 물결 일다.....새벽 바닷가, 하늘색과 물색이 서로 닮아 초록이 된다.

하늘과 바다는 하나로 이루어져 거대한 자연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인간은 자연을 만끽한다. 본 작품은 새벽 구름에 잠긴 바닷가 풍경을 이미지화한 것으로, 엄청나게 큰 파도가 덮쳐오는 모습을 형상화하기 위해 소용돌이 형태를 한 선 다발들을 하나의 큰 흐름으로 구성하고 있다. 소용돌이 중심부의 밝은 부분은 거대한 파도 형상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고 화면 외곽으로부터 소용돌이 중심부로 갈수록 밀집된 선들은 더욱 깊은 공간감을 나타내주고 있다.

또한 간격을 달리하고 있는 선들의 반복은 소용돌이처럼 휩쓸리는 큰 흐름 속으로 어쩔 수 없이 빨려들어 가지만 그 반대편 너머로 보이는 밝은 희망의 세계를 암시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작품의 주조색인 브라운(brown)과 그린(green)을 사용하여 커다란 흐름 속에 깊이감을 나타내기 위해 색상의 명도 단계에 변화를 주어 색의 흐름에 의한 파도와 물보라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작품 3】 천운(濺雲)-흩뿌리는 큰 물결 일다. 118×199cm, 장지위에 천, 커피, 수성물감, 2003.

【작품 4】

- 작품제목: 천운(天雲)-하늘과 구름
- 작품크기: 130×324cm
- 제작년도: 2003
- 작품재료: 장지위에 천, 커피, 수성물감

天雲 -하늘과 구름.....하늘의 생명력은 영혼을 환기시켜주며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 이러한 하늘의 이미지에 구름을 투영시킴으로써 인간의 내면에 있는 열정적인 에너지를 분출하고자 하는 욕망을 역동적으로 표현하였다.

본 작품은 하늘의 생명력을 꿈틀거리며 서로 뒤엉켜있는 곡선을 위주로 표현하였는데, 이 곡선은 그 구도로부터 곧 뿔쳐나올 것처럼 지극히 폭발적이고 이런 역동적인 표현은 거대함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커다란 화면 안에 들어있는 강한 색 덩어리에서도 압도당하는 힘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어둡고 암울한 색조에서 오는 비장함의 힘이라기보다는 커피색 자체가 갖는 격조와 은유의 성격과 주위의 색을 압도하는 깊은 심연에서 오는 원초적인 생명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무게와 깊이가 있는 강한 발색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위해 먼저 브라운 색상을 밑바탕에 칠한 다음에 그린 계열을 덧칠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깊이감은 얻었지만, 그로인해 약간 탁해짐을 느꼈다. 그래서 그 탁한 느낌을 줄이기 위해 더 강한 선들을 리드미컬하게 화면 중앙에 처리하였다.



【작품 4】 천운(天雲)-하늘과 구름, 130×324cm, 장지위에 천, 커피, 수성물감, 2003

【작품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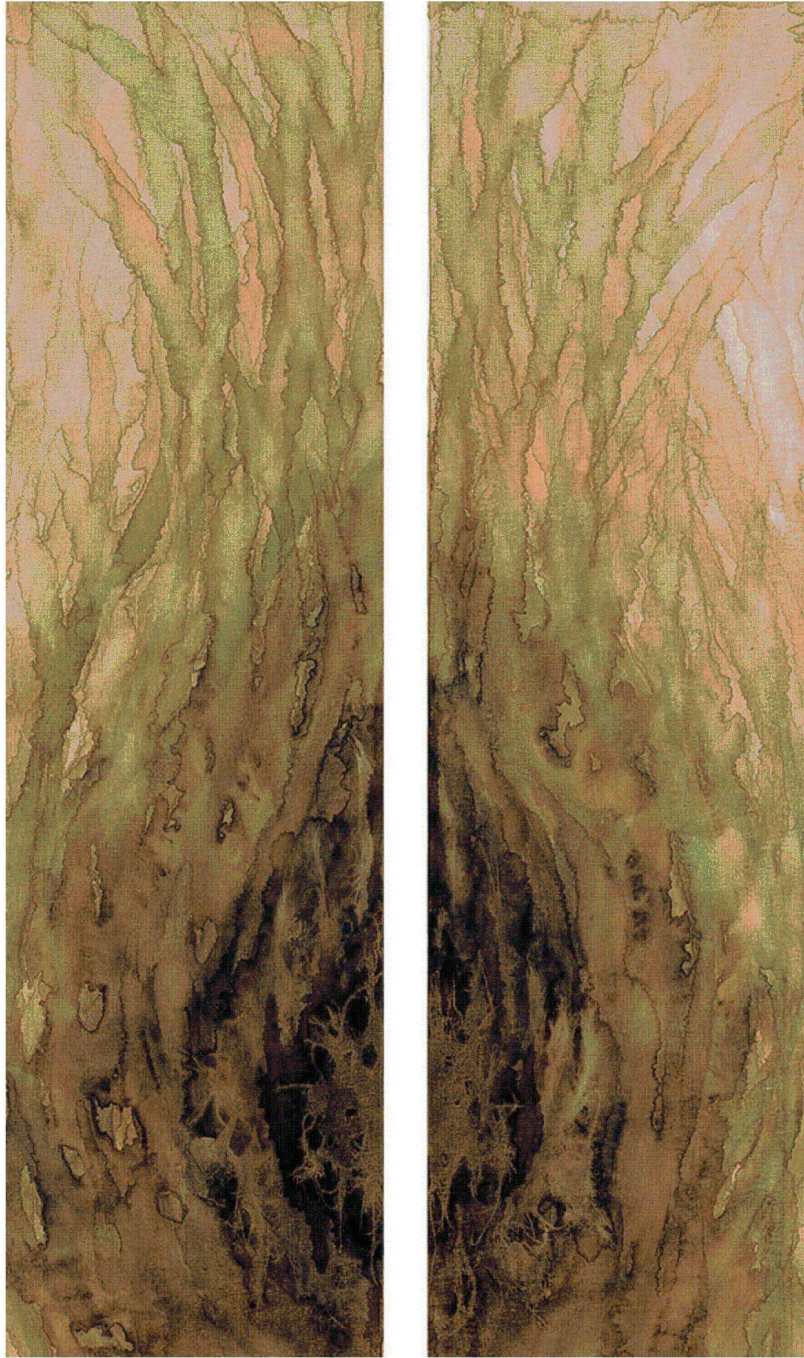
- 작품제목: 천운(天雲)-나무 무늬 하늘
- 작품크기: 140×42cm×2
- 제작년도: 2003
- 작품재료: 장지위에 천, 커피, 수성물감

天雲 -나무 무늬 하늘.....하늘이라는 공간을 2차원적인 화면에 옮기면서 구름은 불규칙한 무늬와도 같은 평면적 얼룩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것은 실제의 하늘보다 더 비현실적이고 또는 초현실적 공간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본 작품의 색채표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하늘색으로 하늘을 표현하지 않았다. 하늘은 색이 없다. 투명하다. 그러면서도 많은 색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처럼 빛에 따라 변화가 많은 하늘색은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색이 없는 하늘에 색을 입히면 하늘색이 되는 것이다.

본 연구자에게 있어서 하늘은 늘 가시적인 거리너머의 무한의 세계, 즉 우주까지로 상상력과 정서가 전이되는데 그 때 ‘영원하고 불변하는 절대’ 로써의 우주는 경외심과 더불어 특정한 색채의 정서로 뚜렷이 다가왔다. 그 색은 바로, 물질성이 제거된 정신성의 상징이며 유한한 존재의 고독을 나타내는 ‘브라운(brown)’이다. 이러한 브라운이란 색은 무한한 공간을 떠도는 것 같은 느낌의 색채로 분명하고 결정적인 것이 없이 부드러운 색채의 너울을 형성하거나, 선의 번짐에 의해 자연의 신비로운 신성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이 하늘에 투영된 심상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상징적인 색들과 구속됨이 없는 무형상의 형태가 조형적 조화를 이루어 극대화된 자유를 나타내었다.



【작품 5】 천운(天棼)-나무 무늬 하늘, 140×42cm×2, 장지위에 천, 커피, 수성물감, 2003

【작품 6】

- 작품제목: 천운(穿雲)-구름을 뚫다.
- 작품크기: 118×158cm
- 제작년도: 2003
- 작품재료: 장지위에 천, 커피, 수성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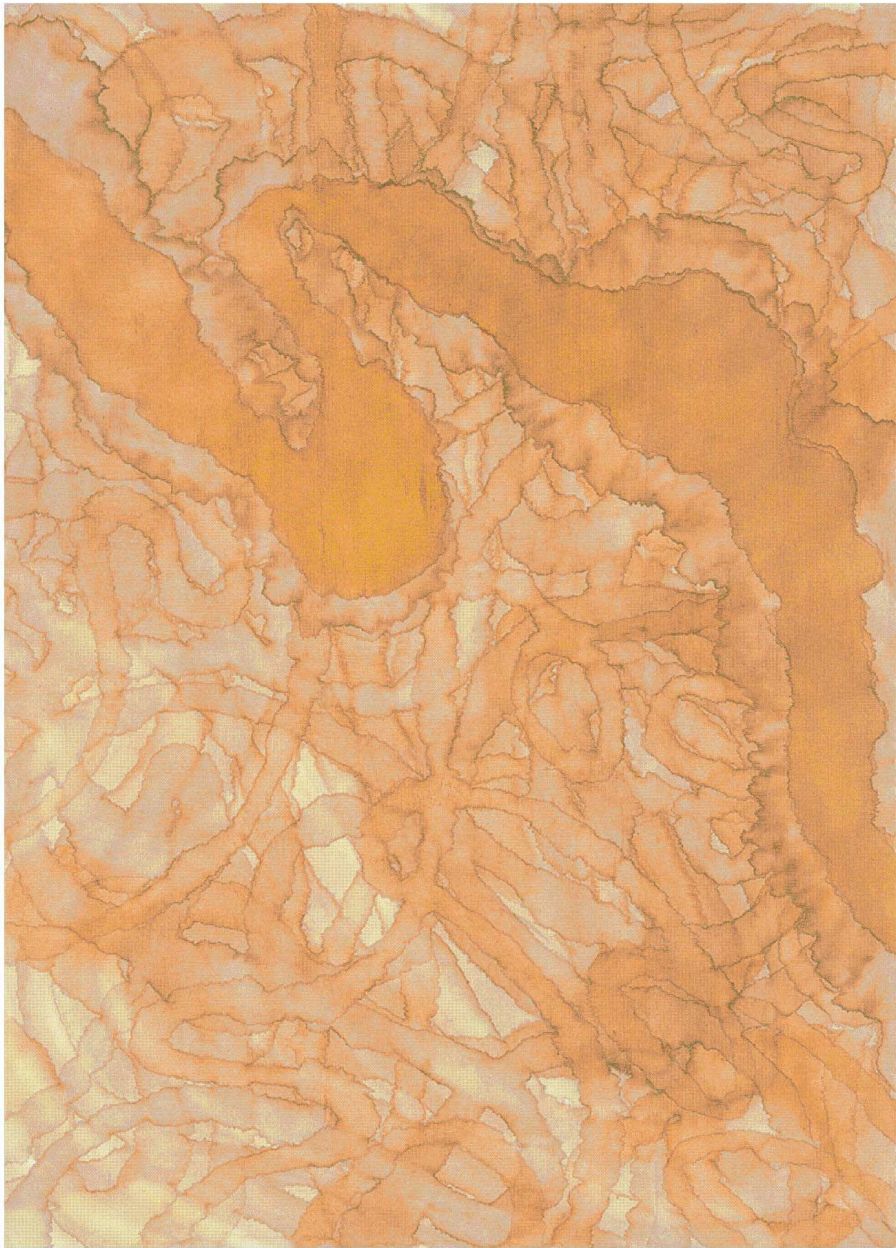
穿雲 -구름을 뚫다.....구름을 뚫고 들어온 빛의 이미지로 거대한 공간의 무한함과 아득함을 상상케 한다.

빛은 강한 침투성이 있어서 어디에나 침투되며 또한 끝없이 밀려들어 옴으로써 깊은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구름을 뚫고 들어온 한 줄기 강한 빛을 표현하고자 하였는데 마치 자연 광선이 프리즘을 통과해 굴절 반사하듯이 빛은 구름을 통과함으로써 또 하나의 새로운 빛을 만들어낸다.

구름을 노란색으로 표현한 것은 옐로(yellow)가 대지(大地)를 상징하는 색이므로 하늘과 땅을 동일시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이고, 이는 하늘을 풍요로움과 신성함을 의미하는 대지에 비유함으로써 정신적으로 다가가기 쉬운 편안한 하늘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노란색의 절제된 색채 표현은 상이한 색의 중첩이나 배열 없이 서로 유사한 계통 색에 의해 그려졌으며, 그려진 상(像)이 화면 위에 시각적으로 안정되게 드러나는 경향을 띤다.

화면 전체의 조화를 피하기 위해선 절제된 색의 사용뿐만 아니라 힘의 분배도 중요한데, 핵심이 되는 주제 부분에서는 강한 선과 빠른 붓질로 화면에 긴장감을 주었다.



【작품 6】 천운(穿雲)-구름을 뚫다. 118×158cm, 장지위에 천, 커피, 수성물감, 2003.

【작품 7】

- 작품제목: 천운(天運)-어지럽게 돌아가다.
- 작품크기: 91×76cm
- 제작년도: 2003
- 작품재료: 장지위에 천, 커피, 수성물감

天運 -어지럽게 돌아가다.....어지럽게 돌아가는 현실이라는 새장을 벗어나 탁트인 자연 속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감혀있던 생각의 틀 속에서 깨어나게 된다. 이처럼 자연 속에서 티 없이 맑은 자연인의 모습으로 돌아가 더없이 고요하게 홀로 있을 때 우리는 뜻밖의 관조(觀照)의 순간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본 작업들은 천을 바탕으로 한 화면을 비어있는 공간으로 인식하여 의도적인 선을 이용하여 화면에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에서 출발한다. 순간적인 물감의 번짐과 그에 따른 속도감 있는 선, 굵고 덮어씌우고 또 굵는 반복적인 선을 이용하여 구름 속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특히 모필이 갖는 부드러운 구조와 물의 농도에 따른 번짐의 변화적 속성이 단순한 공간이 아닌 하나의 의미 있는 공간의 조형성을 나타내주었다. 화면 위에서 만들어 내는 추상적 표현과 붓의 운필(運筆)에 따라 그려지는 선이 본인의 충동적인 감정 표현을 고스란히 드러내주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물감을 천위에 올리는 행위는 순간적이고 우연적으로 나타나는 커피의 얼룩과 커피 자체가 갖고 있는 번지는 속성이 자연적으로 표현되어지면서 작품의 공간을 구성하게 된다.



【작품 7】 천운(舛云)-어지럽게 돌아가다. 91×76cm, 장지위에 천, 커피, 수성물감, 2003.

IV. 결 론

예술의 근원이 되는 자연은 인간이 속한 최대의 환경이며 자연의 미(美)는 그 거대한 움직임 속의 질서, 즉 조화의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의 미(美)는 인간의 예술 활동의 생명적 원천으로, 자연을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은 자연을 새롭게 묘사하고 변형하며 작가의 정신세계와 함께 시각적으로 형상화된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자연의 하나인 하늘과 구름을 내면에 잠재되어있는 자신만의 세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내적욕망의 충족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하늘이라는 소재는 인간의 상상력을 일깨우고, 초월과 자유의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며, 세계를 새롭게 인식하는 매개물이다. 그리고 그 안에 다시 구름을 통해 자신의 모습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갈망을 투영시키면서 무한한 심상을 지닌 대상으로 구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자연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맹목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새롭게 경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표현기법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어떤 특정 이론이나 경향에 의존하기보다는 실제 작업 과정을 바탕으로 작품의 주제와 배경, 형태와 색채, 구도와 공간감, 그리고 표현기법과 재료 등을 연구해 보았다.

그 결과 방법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우연적인 커피의 얼룩을 이용한 번지기 방법을 사용하여 천위에 추상적 형태를 형성시켜 나갔고 색

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제한된 색을 사용하되 커피의 혼합을 필수로 하여 화면에 통일감을 주었다. 또한 우연적 선들을 의도적인 형태로 유도시켜 자유로움을 모색해가는 과정에서 얻은 생동감 있는 표현이 하늘과 구름의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효과적이었다. 반면에 사각의 정해진 화면 안에서 하늘과 구름을 표현함으로써 그것이 갖고 있는 무한한 공간 이미지를 고정된 틀 안에 담아내야하는 아쉬움이 남게 되었다.

이번 논문은 통해 본 연구자의 의식이 작품에 어떠한 과정으로 반영되었는지 조금이나마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하늘과 구름의 다양한 표현형식을 바탕으로 하여 좀 더 깊은 관찰과 넓은 시각으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표현 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자연에 대한 동양의 심오한 철학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했고 기법상의 미숙함으로 인해 표현이 의도한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재료와 기법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지속적인 창작활동으로 본 연구과정에 대한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고 조형의지에 따른 효과적인 표현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데이비드A. 라우어, 「조형의 원리」, 이대일(역), 미진사, 1985.
- 백기수, 「미학」, 서울대학교 출판국, 1979.
- B. 클라인트, 「인간의 시작, 조형의 발견」, 오근재(역), 미진사, 1994.
- 안상수, 「한국 전통 문양집 4 구름무늬」, 안그라픽스, 1998.
- 이은상, 「자연론」, 예술원논문집, 1966.
- 임영주, 「한국전통문양 I」, 예원, 1998.
- 칸딘스키, 「점,선,면」, 차봉희(역), 열화당, 1983.
- 허 균, 「전통문양」, 대원사, 2003.
- 허버트 리드, 「예술이란 무엇인가」, 윤일주(역), 을유문화사, 1971.
- 홍가이, 「현대 미술, 문화 비평」, 미진사, 1987.

참고학위논문-----

- 강지인, 「하늘에 투영된 나의 심상 연구; 나의 작업을 중심으로」, 동덕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1999.
- 나진희, 「천(cloth)을 매체로 한 내면 세계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2002.
- 박상규, 「동양화 여백의 의미에 대한 분석」, 군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2001.

ABSTRACT

STUDY ON OPTICAL IMAGE EXPRESSION WITH REGARD TO SKY AND CLOUD

- WITH EMPHASIS ON MY ARTWORKS -

Kim, Ji Young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resent paper is comprehensively composed of formative principle, method and the like involved in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oduction that are the bases of my artworks before submission of paper for the master's degree.

The artworks made during my two years of graduate school days are intended to visualize the sky and the cloud that are friendly objects of our everyday life based on the Mighty nature of absolute world and aesthetic experience that is a rapport with self of a finite being.

The sky and the cloud per se can be yearning objects for people of modern days who are entrapped in numerous restrictions and standardized routine frames under harsh modern conveniences. It is because the sky

having basic originality and infinite spatiality can provide the urbanization-laden people with spiritual allowance through sense of sight.

The space seen in my artworks is not a part of a restricted landscape but defines an infinite space extended into outside of our visibility range, and images of sky and cloud that are never to be accessible in our cognition are not frame-bound objects, but expression of human being's infinite and free inner life.

I have tried to connect the impression felt through the sky and the cloud thus described to an inner mental image for lyrical interpretation and to simultaneously portray same in a new expressive technique.

First of all, a study has been made on intentional fortuity along with a fortuitous effect intrinsically contained in material with a keen interest in expressing the inner world in expressed production of my artworks.

Furthermore, the self-regulating movement of lines formed by coffee spreads functions as a natural image in the sky-is-the-limit space.

To me, the expressive media herein referred to as fabric and coffee are adequate and proper in expressing the sky and cloud, and concurrently give rise to a synergistic effect in emphasizing the spontaneity of expressive media to some extent.

I will try to continuously pursue more on the spreading technique in order to express the formation of spontaneous lines utilizing the characteristics of coffee such that creative and innovative formation world can

be further advanced.

The paper has provided me an opportunity of seeing an inner side of my real self in the course of theoretically analyzing the experience of working on my humble artworks. The paper has also rendered me a moment of going one step forward towards the world with a wider point of view and an open mind-set.

Through the paper thus prepared, I may be able to arrange my present world of artworks and weigh the futuristic direction to go ahead.